



자 녀가 부모에게 '난 이성보다 동성이 좋아' 하면 어떤 느낌일까. 옆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면 어떤 기분일까. 남편이 동성연애자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동성연애자라고 밝히는 순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최근 탤런트 홍석천씨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한 인터뷰에서 밝히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 싫다며 공표한 것이다. 그동안 홍씨는 주위에 여성적인 몸짓과 말투로 의혹의 눈길을 받아왔던 처지였다.

그러던 그는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동성연애자라고 털어놓은 것이다. 주위로부터 용기있다는 말도 듣지만 잘나가던 프로그램에서 잘리는 비운도 맛봐야 했다. 외국에서는 인기 연예인이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는 일이 종종 있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홍석천씨가 동성연애자라는 보도이후 덕분에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병원에서는 결혼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몇 번 없는데 혹시 동성애자는 아니냐며 찾아오는 부인도 있다.

동성애란 말 그대로 이성애에 대해서 보다는 동성애에 대해서만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성을 보면 좋아하고 성적인 감정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전생애 무슨 인연인지 남들처럼 이성의 뒤꽂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물론 개중에는 양쪽 성에 대하여 모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자아 이질적 동성애와 자아 동조적 동성애로 나누어진다. 자아 동조적이란 자신이 동성애라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이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한동안 동성애를 정신적 질환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동성애를 타고난 자연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인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를 자아 이질적 동성애라고 하며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경우로 치료가 필요하다.

원인은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다, 혹은 태어나서 환경에 의한다는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최근 동성애에 대한 정의로는 동성과의 성관계에 있어서만 성적적응이 되는 경우로서 환경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교도소나 군대 등 동성들의 집단에서 환경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동성애가 발생된다고 보기도 한다.

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는 군대에서 선배 고참 군인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한 이후 동성애자가 되었으나 제대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발기가 안된

다며 찾아왔었다. 이성과 결혼을 하고 싶으니 음경보형물 수술이라도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동성애를 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발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혼한지 2년이 넘도록 성관계가 몇차례 없었다며 찾아온 부부도 있었다. 부인 딸이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전화만 받으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밖에 나가고 들어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남편이 여성의 속치마를 즐겨 사오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입어 보라고 하고 자신도 입어본다는 것이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성관계가 없이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같아 찾아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여성속옷에 대한 성도착증이 있으면서 동성애자였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이성에 대하여 성적욕구를 느끼듯이 자신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느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동성애자수는 어느 정도 될까. 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킨제이에 의하면 여성의 13%, 남성의 60%가 동성애자라고 하였으며 최근 어떤 학자들은 10%정도라고도 한다.

한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체 백인 남성의 약4%가 청소년기 이후 계속적인 동성애를 하고 있으며, 16~65세 사이의 남성 중 3년 이상 동성애를 유지한 사람이 13%, 남성의 37%가 한때 동성애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일까. 본 병원에서 한국 기혼 남성 2,4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및 성실태에 대하여 조사했었다. '동료나 다른 남성에게 성적 감정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물어본 결과 2.7%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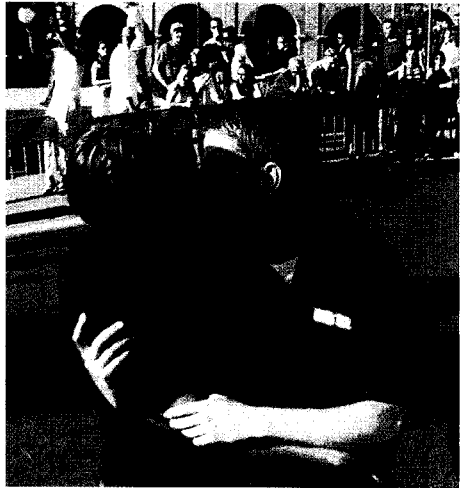
1998년 한국 6대도시 기혼 여성 1,4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및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의 3%에서 동성애 성향을 보였다. '자신에게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다'고 답변한 여성이 전체의 3%이었으며, '그렇지 않다'가 88%였다. 흥미로운 것은 동성애가 최악이라고 물은 결과 세 명중 한 명 꼴로 '최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다고 본다. 사회규범상 이들을 용납하기 어려웠던 점이 많다.

부모들은 주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고 하여 백안시 하였다. 그들이 왜 남들과 달라야 하는지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성애자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지되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앞으로의 사회는 확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성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는 이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